

언어 활동으로서의 문학

-문학과 언어에 대한 에세이

우한용*

I. 관점의 문제

인간의 일상생활은 결국 언어활동으로 수렴된다. 남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조정하고 어떤 일을 해내는 데 언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기억과 예측이라는 행동과 연관지어 보았을 때 이는 더욱 적실하다. '동강'에 가서 어떤 풍경을 보고, 그곳 주민들의 사정을 이야기 들었다고 하자. 누군가 있어, 동강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가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말은 기억에 떠오르는 장면과 들은 이야기를 내 말로 다시 바꾸어 전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처럼 사태가 그렇게 단단치는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주체의 행동1: 동강 지역 여행 중 동강 지역의 풍경 바라보기.

* 동강은 아름답다.

주체의 행동2: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듣기.

* 동강은 우리 생활의 터전이다.

주체의 행동3: 동강 보존의 필요성

*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 동강은 보존되어야 한다.

이 밖에 얼마든지 자세한 묘사와 서사를 섞어 동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내 시각으로 채록하고 그들의 말을 자세히 기록하면 실제 동강을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한 것 이상의 언어자료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리고 동강이 댐 건설로 훼손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어느 청문회에 가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동강을 대상으로 한 편의 시를 쓴다든지 수필을 쓴다면 그것은 문학활동, 언어활동이다.

이러한 통합적 활동 속에서 언어가 운용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까지 우리는 어떤 언어활동을 서술하거나 논의의 대상에 올릴 때 언어활동의 어느 한 국면만 잘라내어 객관적 대상인 것처럼 다루어 왔다. 언어활동의 의도와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각각의 효과를 따지는 데에 골몰한 것이다. 그 가운데 언어학적 관점과 話用論的 觀點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은 국어교육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어 왔다.

언어학적 관점이란 언어활동의 결과물을 하나의 실체로 취급한다. “동강은 아름답다.”는 문장은 주체의 정서적 수용과 판단을 글로 옮긴, 무엇이 어떠한가 하는 기본 문장이라고 설명된다. “동강은 우리 생활의 터전이다.” 이는 주민들의 주장을 압축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문장 가운데 들어가는 인용문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동강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자의 주장을 나타내는 하나의 문장으로 분석된다. 또는 이들 문장이 하나의 글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앞의 두 문장이 끝의 문장을 이끌어 오는 근거가 된다는 식의 논리적 설명도 있을 수 있다.

화용론적 관점이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그의 도는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고려하여 언어활동을 설명한다. 그렇게 되니까 언어활동의 의도와 그 효과를 따지는 편에 치중한다.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즐겨 따진다. 위 예에서 화자는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은 누구인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과제로 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맥락의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그러나 언어활동을 설명하고 가치부여를 하는 데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충분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더 따져 보아야 한다. 이는 언어활동을 인간의 근본적인 의미활동으로 보는 관점이다.

- (1) 왜 언어활동을 하는가?
- (2) 언어활동의 구조는 무엇인가?
- (3) 어떤 주체들이 언어활동에 관여하는가?
- (4) 언어활동의 결과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러한 관점에 설 때라야 실생활의 언어와 문학의 언어를 정당하게 이해하는 바탕이 마련된다. 문학은 유목적적인 활동이다. 물론 문학이 구체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함으로써 이른바 목적문학이니 하는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의 감정이나 감흥을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욕구에서 비롯하여, 정서적인 감흥을 읊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이념이나 정치적 신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문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의도나 목적의 純粹, 非純粹 논의는 사실 그렇게 정당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문학은 해당 장르의 일정 규칙을 최소한 준수해야 문학활동이 된다. 산비탈 강냉이 밭을 매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한 가락의 '아라리'도 그 나름의 방식을 준수한다. 이를 언어활동의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다. 어떤 주체가 벌이는 언어활동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그리고 어떤 활동이 있으면 그 활동의 효과 혹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언어활동은 사회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개인에 국한되는 순전히 주관적인 것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나가면, 논의의 출발점은 언어적 텍스트가 아니라 언어 활동이라는 데에 놓이게 된다. 물론 언어적 텍스트 개념을 확장하면 언어 활동 전체를 그 안에 포함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문자로 된 텍스트를 뜻한다. 활동 가운데 언어가 매개되는 활동 전반을 언어활동이라 규정하고, 언어활동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왜 글을 쓰고 글을 읽는가, 그리고 그 효과는 인간의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육적 고려를 하게 될 때, 문학과 어학의 양분법적 논의를 벗어날 수 있고, 문학활동에서 언어가 무엇인가 하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절차의 편의를 위해 언어학적 관점을 좀더 자세히 돌아보는 데서 논의의 시발을 삼고자 한다.

II. 언어학의 관점

학문의 영역에 따라 말의 쓰임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논리학에서는 부호로 수렴하는 언어를 지향한다. 일상적인 의미가 덧붙을 때 논리의 선명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학의 경우도 유사하다. 언어학은 언어현상이 지닌 논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언어를 자료차원에서 실체로 다룬다. 언어를 실체로 다룬다는 것은 언어현상과 언어현상이 이루어지는 외적 맥락을 단절하고 출발한다는 뜻이다. 다음과 같은 문장의 예를 보기로 한다. 여기서 문장이란 언어활동의 구체적 단위라고 해도 좋고, 달리 말하자면 언어활동의 결과라 해도 좋을 것이다.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나'이다. 그리고 서술어는 명사와 서술격 조사가 연결되어 있다. 나는 사람이라는 유개념에 대해 종개념이 된다. '진실한'이라는 말은 종차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문장은 논리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잘 만들어진 문장이다. 사실의 판단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진실한'의 기본형은 '진실하다'이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됨' 또는 '헛되지 아니함'이라고 풀이되어 있다.(삼성판, 새 우리말큰사전) 나는 바르고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문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풀이로 이 문장의 뜻을 다 알 수 있는가? 언어학적 관점에 가감 없이 문학에

수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언어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언어활동은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통을 뜻한다. 말하는 주체가 있고 그 말을 듣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체가 대상에게 자신의 진실함을 언명하거나 주장하는 활동이다. 진실이란 거짓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꼭 그런 뜻으로 의미를 한정할 수 있는가? 예컨대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러한 발언은 무색투명한 진공의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소한의 맥락이 부여되어야 이러한 발언이 가능하다.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지가 있고, 말하는 동기가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말에 대한 언중의 공감 즉 의미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맥락을 투명한 것으로 상정할 때, 이 문장은 사실의 서술로 읽힌다. 그러나 그러한 서술을 하도록 하는 여건을 고려한다면 이 자료는 주장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읽힌다.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할 항목이다. 그렇게 되면 이 문장은 뜻을 알기 어려운 언어자료가 된다. 다른 사항은 모두 괄호치고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언어학적 관점이다. 그렇다고 유연성이 없는 논리라든지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논리가 자체로서 설명력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현실에 접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 커다란 낙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렇게 본다면 언어현상을 현상 자체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다. 언어활동으로 시각을 달리할 때라야 언어현상을 폭넓게 설명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적 안목에서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언어를 가르치는 일이 언어에 대해 가르치는 일도 있지만, 언어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으로 언어를 가르친다는 의미가 규정되기도 한다.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언어를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데올로기적 작업이다.

Ⅲ. 화용론적 관점

화용론은 언어의 일상적 수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언어사실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언어수행의 상황이란 주체, 대상, 맥락, 의도,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언어자료를 자료로 확정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상작전은 불가피하게 추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약간의 설명을 해 보기로 한다.

누가 말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데 따라 위 명제는 진위가 달리 판별될 수 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주체를 상정할 수도 있고, 그 반대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다. 성인이 말하는 경우에서 사기꾼이 말하는 경우 사이의 스펙트럼에 주체의 위치가 자리잡힌다. 누구에게 말하는가? 상대방이 나의 진실됨을 긍정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다. 나와 어떤 관계인가 하는 점이 다시 문제된다. 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은 사실을 진술하는 형식을 빌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는 데 따라 말의 뜻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자기긍정과 자기기만의 篇幅 사이 어느 지점에 이 말은 놓인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한가?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풍자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혹은 점잖게 말할 수도 있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 말로는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 스스로 “나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부정할 수도 있다, 확신이 없다, 그렇게 되고 싶을 뿐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등 가능한 태도는 다양하다. 듣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한가? 듣는 사람의 태도 여하에 따라 말뜻이 달라진다. 믿음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남들은 너를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러한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너의 진실함을 믿지 않는다고 할 때, 위 문장은 다른 뜻을 지니게 된다. 화용론에서는 보편주체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 별이는 언어활동의 개별적 상황을 모두 이론의 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필연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수용자 편에서, 너는 나를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나를 인정할 수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나가면 이미 화용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자아의 인격분열이라든지 심리적 이상현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국면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용론은 언어의 바깥세계에까지 걸쳐 있는 언어활동을 언어 안쪽에서만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언어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언어활동의 법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학문에서 예외가 없는 규칙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상이 자리잡고 있는 현실맥락에 대비했을 때, 설득력이 없다면 학문 그 자체로 공소한 이론이 될 공산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화용론적 관점에서 주제와 대상의 문제를 고려해 보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두고 살펴 보는 것이 편리할 듯하다. 앞의 문장에서 주어만 하나 바꾸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된다.

너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 말의 뜻은, 너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나는 믿는다는 뜻이다. 혹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한 사실을 너도 인정하고 믿는다는 점이 전제된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야기 맥락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혹은 진실로 인정한다. 그렇지 않을 때 이 말은 무의미한 것이 되거나 참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떠한가. 이러한 말이 수행되는 구체적 상황에서 보았을 때, 그 상황이 제기하는 조건에 따라 뜻이 달라지거나 무의미한 말이 될 수 있다.

나는 네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너는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명제 자체가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

둘째, 너의 진실함을 나는 믿어야 한다.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은 거짓이 된다. 셋째, 대상(너)은 주체(나)의 믿음을 인정해야 한다. 넷째, 남들도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만 위 문장은 참이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 말이 참이 될 수 없다. “너는 진실한 사람이다.” 라는 문장에서 ‘너의 진실’이 사실이 아닌 경우,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경우, 또는 대상이 주체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은 참이 될 수 없다. 이상의 말은 참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문장은 참이 될 수 없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다.”와 같은 경우는 더욱 복잡한 인식상의 문제를 불러온다. 내가 그와 意味共有를 이루어 내야 하고, 그 결과를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믿어야 한다. 주체와 대상, 그리고 지시체 사이의 의미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의 공통성이 삼중으로 합치되어야 한다. 내가 말을 하고 당신은 듣고 있으며, 지칭의 대상인 그 사이에 의미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진실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나는 네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말로 다시 풀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언어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도식화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나는 (나는 (너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다/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활동의 이중성을 확인하게 된다. 내가 하는 언어활동은 두 층위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너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명제가 있다. 그 명제가 참이라고 나는 믿는다. 명제, 믿음, 주장은 ‘말한다’는 행동의 내용이다. 이는 철학에서, 언어행위론에서 발화수반행위라고 설명되는 사항이다. 이처럼 언어활동은 이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언어가 수행되는 국면에서는 (나는 (너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것만 수행되거나 더 줄여서 () 안의 내용만 수행된다. 말을 한다는 것은 메타언어를 덧붙이는 일

이 된다. 메타언어는 중괄호()의 바깥에 존재하는 언어의 국면이다. 말하는 행위를 다시 언급하는 것이 덧붙여 나간다.

나는 내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문장의 내용이고, 이의 수행은 말한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믿는다는 것은 심리내적인 문제이고 말한다는 것은 물리적 차원의 행동이다. 그리고 이 행동은 구체적인 언어활동의 상황에서는 언표되지 않는다. 때로는 부가적 수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하는 식으로 언표가 되기도 한다. (*그런 말은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에 자주 나타나는 수사법이다. “국민 여러분의 성의에 보답하겠다고 제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말을 하면서 지금 나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

화용론이 주체와 대상과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상황의 구체적 양상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 언어를 이데올로기 표현으로 보아야 주체와 대상, 그리고 상황의 의미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 차원은 화용론을 넘어선다.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담론분석 차원이다. 문학의 언어가 단지 개인의 의지나 지향을 표출하는 데서 지나 이념의 실천까지를 담당하는 것이라면 언어활동의 이러한 차원까지를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떤 언어활동이든지 그것을 고정된 실체로 두고 이루어지는 논의는,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한계에 금방 봉착한다. 그러한 논의에서는 형식논리만 의미를 지닐 뿐이다. 형식논리를 뛰어넘는 실존 차원의 인간을 고려할 경우, 설명력을 얻기 어렵다. 언어활동 차원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존으로서의 활동주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방법을 달리 모색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IV. 일상언어에서 문학의 언어로

일상에서 수행되는 언어는 담론 차원의 언어이다. 구체적인 상황과 주체와 대상이 언어적 경합을 벌이는 살아 있는 언어의 실상을 담론이라고 규정하는 입장이다. 그런 시각에서는 주체와 대상을 이념적 실체로 상정하지 않고는 일상언어를 논의할 수 없다. 그리고 일상언어는 통상 대화적으로 수행된다. 밀도 끝도 없이, 누구에게라고 할 것도 없이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하는 발화는 수행되지 않는다. 최소한 이 글에서처럼 언어활동의 설명 자료로 삼기 위해 종이 위에다가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써 놓고 이를 대상으로 언어활동을 설명할 경우라도, 그 목적과 의도와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언어활동은 구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의 공유와 의견의 교섭, 이념의 실천을 도모하는 행위이다. 이것이 일상언어의 실상이다. 농담이나 험담에서 설법과 설교에 이르기까지, 광고에서 선동 선전에 이르기까지 언어활동 양식의 분화는 사회·문화적으로 다시 규정된다. 언어활동에 있어서 문화적 규칙을 배우는 일은 언어 운용의 규범을 배우는 것이다.

일상언어는 지극히 규범적으로 수행된다. 일종의 관습에 의존하는 언어 활동이다. 아침에 만난 동료에게 인사를 할 경우, 인사 방법이 사람마다 별로 다르지 않다.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야유회 재미있었습니까?” 하는 등의 공식적인 인사 방법이 있다. 그러한 인사 방식이 약간만 달라져도 그 맥락적 의미를 금방 알아차린다.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실리는 음색, 거기서 빛어지는 느낌, 말하는 태도, 말을 듣는 사람의 느낌과 태도 등에 따라 인사의 의미는 다양하게 변별된다. 언어의 공식성과 사적 친밀성(인티머시)은 이처럼 공존한다. 일상언어의 수행은 공적 차원보다는 사적 차원에 더 기대는 바가 있다. 언어활동의 사적 차원은 주체의 분화와 관계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기로 하자.

너는 (나는 (내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안다.

여기서 나는 복합주체가 된 연후에 복수주체에 포함된다. 복합주체는 주체의 분화를 거쳐 복합적으로 설정되는 주체이다. 내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알고, 믿는 것은 그러한 말을 하는 주체와 다른 차원에서 분화된 주체이다. 복수주체는 언어활동이 주체와 다른 주체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 경우, 나와 너의 복수주체 사이를 상정하지 않는 한 무의미한 언어활동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남과 소통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진술에서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특성과는 눈에 띄게 변별되는 점이다. “인간은 사교하는 동물이다.”라는 문장에서 누가 그렇게 규정하는가,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는가, 말하는 태도와 듣는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등의 조건은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러나 “밖에 비가 내린다.”고 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단지 그런 언표의 조각(발화 분편)이 있다면 이는 사실세계와 단절된 순수한 언어체일 뿐이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나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어떤 발화/언표든지 상황과 연관되면서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때문이다.

사실세계와 단절된 순수한 언어세계를 상정하고 논리를 전개할 때, 논리중심주의(로고센트리즘)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순수한 언어세계라는 그러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말에 대한 화자 자신의 태도는 어떻고, 청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점이 언어활동의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 이상의 조건을 따라 구체화된 언어야 일상언어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언어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문학을 통해 확인하는 일이 이 글의 과제이다.

언어활동의 구체적 국면에서야 일상어가 문학의 언어로 전환된다. 문학에서 언어활동이 이루어지는 데는 구체적 상황이 요구된다. 구체적 상황이 조성되는 방식은 장르마다 차이가 있다. 시의 경우는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혼자 외치는 방식으로 상황이 조성된다. 서술자를 동원하여 남의

이야기를 시의 내용으로 하는 리얼리즘시 같은 경우가 없는 바 아니나, 이는 시의 본질 국면은 아니다. 희곡에서는 사건의 상황을 무대 위에 설정하고 배우들 사이에 언어활동이 이루어진다. 관객들을 액자로 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이다. 소설에서는 일상생활과 아주 유사한 맥락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인물의 행동을 따라 언어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의 언어활동과 가장 닮은 양태의 언어활동을 텍스트 안에서 보게 된다. 독자의 상상공간에 작중인물과 서술자의 언어활동이 재현되는 것이 소설의 언어활동 특징이다.

그러나 다시, 문학언어활동이 메타차원으로 전이된다는 데에서 복잡한 문제가惹起된다. 문학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이 텍스트 바깥의 언어활동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의 텍스트는 비평담론의 대상이 되고, 비평은 다시 메타비평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전이는 이론상 무한정 전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활동의 범위를 어디로 한정하는가 하는 데 따라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

V. 문학의 언어활동 논리

문학은 창조적 생산성을 띠는 언어활동이다. 언어활동 주체들의 생산 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은 주체의 의지가 발양되는 언어적 방식이다. 말로 하는 것인가 글로 쓰는 것인가를 엄격하게 가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화적으로 의미있는 활동 범위에 드는 언어활동 가운데 언중이 문학이라고 인정하는 언어활동이 문학인 것이다. 작가의 경우로 한정할 경우, 문학적 언어활동은 작가의 언어활동 즉 작품 만들기의 의지와 연관된다. 이는 작가는 왜 작품을 쓰는가 하는 물음에 연계된다. 이에 대한 대답을 일괄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최인훈의 <화두>에서 해답의 단초를 찾아보기로 한다.

내가 만일 소설을 읽기만 하고 지내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잘된 소설을 즐기지만 하면서 평생을 보냈을 테고 읽을 만한 소설이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가를 모르면서 지냈을 것이다. 이야기를 읽는 재미가 그 런다고 조금도 다쳐지지는 않지만, 이야기라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운동의 한구석에는 아무래도 들어서지 못하고 만다. 쌀을 경작해 보지 못하고는 '쌀'이라는 현상의 중요한 한구석을 모르는 채로 지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 사정과 다를 바 없다. 나는 쌀을 만들어서 먹는 사람이고 싶었다.(최인훈, <화두> 제1부, 민음사, 1994:152)

이는 소설의 한 구절이기 때문에 언어현상 일반을 설명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말을 하고, 작품을 쓰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正鵠을 찌르고 있다. 우리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고서 사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글을 읽기만 하고 나는 쓰지 않으면서 살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하는 경우에는 글을 쓴다. 그리하여 말과 글을 통해 남과 대화를 한다. 이는 언어의 주체로서 자신을 윤리적 영역으로 이끌어 들이는 일이다. 내가 말을 한다는 것, 내가 언어의 주체라는 깨달음, 내가 소설을 쓴다는 것은 주체를 창조적 차원의 주체로 이끌어 올리는 일이다.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남의 이야기를 듣는 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글을 쓰는 것이 남의 글을 읽는 데 도움이 되면 되었지 장애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이 근원적으로 보장된다는 뜻이다. 내가 언어의 창조자이면서 수용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언어활동의 욕망이다. 여기서 언어의 욕망이 인간에게 본원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문학의 언어는 문화적 장치로 전승이 이루어진다. 언어활동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양상 또한 이와 같다. 신화나 전설이 언어 세계에 속하되 그 언어세계가 지속되는 데는 교육이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언어자료로 취급했던 것을 교육의 실천 가운데 이끌어 오지 않으면 언어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점은 새로이 음미할 사항이다.

신화나, 전설은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주어진 기능이 아니라, 인간이 짐승에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창조한 '제2의 감각'이다. 그것은 배우지 않으면 '없고', 배워야만 '있게 되는' 인간의 인공기능이다. 인공기능의 뿌리는 '영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짐승들이면 다 가지고 있는 '감각'이다. 감각은 가만히 놔두면 짐승의 욕심일 뿐이다. 신화적 감각은 '재활'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 그것을 만든 옛사람들도 '배워'서 그것을 '자기의 안'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전승(傳承)'된다는 것은 그 '배움'의 과정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말을 뜻할 뿐이지 재물을 물려받는 것처럼 되지는 않는다. (152)

배움의 과정은 언어와 실체의 세계를 이어 준다. 그 배움이라는 것은 언어세계를 형상세계로 옮기는 것이 기초이다. “책에 실린 꼭두각시 그림으로는 그 물건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만들어본다는 것. 이 세상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이에 적힌 약식 기호’만으로는 미심쩍어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보는 일을 하고, 그제서야 자기 머릿속에 그것들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152)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바늘과 실의 관계로 설명한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를 매어 쓸까.” 언어와 실체의 세계를 정당한 방식(교육과 훈련)으로 연결할 때라야만 바느질은 성공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꼭뒤에게 썩인 꼴이 된다는 것이다.

언어활동의 교육은 훈련에서 시작한다. 최인훈의 <화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성장과정에 맞물려 있는 언어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은 ‘현실’ ‘책읽기’ ‘글쓰기’ 사이의 책읽기에 해당하는 일이다. 일상에서 구사되는 언어가 창조적이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한 인간의 성장을 단계지어, 성장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독서는 언어활동의 수용 측면에 기울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벌이는 언어활동은 언어를 體化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용납이 된다.

숙제가 아닌 그 책읽기에서 나는 '인류의 본질'인 '생물 수준의 지각(知

覺)을 기호에 의해 초생물적 수준으로까지 증폭하는 일'이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글'이라는 이 기호에 의한 의식의 체력단련이라는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거짓의 정보이건 진실한 것이건 기호의 자극을 자신의 조직 속에 번역하여 쌓아놓는 칩(chip)으로서, 자기의 뇌를 개발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여전히 그 정보들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아는 힘과는 무관하였지만 무엇보다 먼저 이 훈련이 있고 불일이었다.(72, * 본문의 강조 표시 < >는 ' '으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문학의 언어는 텍스트와 텍스트의 중첩으로 이루어진다. 텍스트연관성을 지니지 않는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활동의 창조성은 언어활동 안에서 이루어진다. 언어활동은 낡은 언어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언어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문학의 언어는 생활세계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다른 문학의 언어를 이끌어 들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단일한 체계를 이루지 않는다. 최인훈의 <화두>에서는 조명희의 단편소설 <낙동강>을 인용함으로써 소설의 첫머리를 삼고 있다.

[낙동강 칠백 리, 길이 길이 흐르는 물은 이곳에 이르러 결가지 강물을 한 몸에 몽쳐서 바다로 향하여 나간다. 강을 따라 바둑판 같은 들이 바다를 향하여 열려 있고 그 넓은 품 안에는 무덤무덤의 마을이 여기저기 안겨 있다. 이 강과 이 들과 거기에 사는 인간 -- 강은 길이길이 흘렀으며 인간도 길이길이 살아왔었다. 이 강과 이 인간, 지금 그는 서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으면 아니 될 건가?]

-- 이렇게 시작되는 포석(抱石) 조명희(趙明熙)의 「낙동강」을 아직도 갈 수 없는 곳 북한의 항구도시 W시의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창 밖의 큰 오동나무 그림자가 어롱지는 국어교과서의 책장 위에서 배우던 일이 어느덧 40년도 넘는 한 고비 옛일이 되었다. 부스럭거리며 어롱지는 오동나무 그림자가 일렁이는 「낙동강」속에 살아 숨쉬던 강물과 사람들, 주인공과 그가 사랑한 여자의 모습은, 고등학교 1학년의 수준에서 감상된 것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아무에게나 고등학교 1학년은 한 번 밖에는 없는 것일뿐더러 인생의 다른 시점에서는 밝아보기 힘든 고비인 것도 사실이다. 「낙동강」을 생각할 때마다 부스럭거리는 오동나무 잎새 소리와 책장에 어롱지던 나무 그

림자가 꼭 끼여드는 것은, 거기가 W시 이외의 어떤 다른 곳도 아니고, W고등학교 1학년 교실 아닌 어떤 다른 장소도 아닌 그 자리에서 읽은 「낙동강」이라는 뜻일 테고 그래서 그때 그 자리의 나와 거기다 「낙동강」을 합친 어떤 사건이 <나의 낙동강>이다.(9)

하나의 소설이 다른 소설을 구성하는 재료 역할을 한다. 이렇게 구성하는 중에 소설담론(소설언어)의 주체는 다층적으로 세분화된다. [] 표로 묶는 부분은 물리적 차원으로 훼손되지 않는 한 원형을 유지한다. 다만 이를 인용하는 이들의 의도에 따라, 그리고 맥락에 따라 변용이 가능할 것이다. 소설론에서 서술의 방법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각되는 것은 주체의 다층적 분화 가능성 때문이다. 주체의 다양한 분화는 의미의 분화를 가져온다. 여기서 텍스트의 겹침이 작용하게 된다. 텍스트마다 다른 주체를 가지고 언어가 수행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학의 언어활동은 구체성을 띤 언어를 지향한다는 점을 이 자료는 잘 보여준다. 위 인용문에는 ‘나’라는 주어 가 마지막 문장에 한 번 나온다. 인간 존재의 필연적 조건인 지금 여기(히크 에트 눈크)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언어활동이 구체성을 띤 점, 분위기, 시간과 장소, 그 시간 그 장소의 인물인 나는 시간과 장소의 구체성을 벗어나서는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이는 언어활동의 본질조건이다. 당시의 사건은 작가가 글을 쓰고 있는, 따라서 언어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의미의 가닥을 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독자의 ‘지금 여기’로 전이된다.

텍스트의 중첩이 언어활동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적극적 양상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글을 쓰는 일이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반응을 나타내는 것도 이와 구조상 일치한다. 「낙동강」을 읽고 이야기를 써 오라는 과제를 받고, 그 과제로 쓴 글을 상황과 함께 보이면 이렇다.

작문 숙제에서 나는 쓰고 있었다. [나는 W근교의 친구네 과수원집에 초대된다. 여름 밤이다. 마당 평상에서 이야기하던 친구는 안으로 들어가서 같은 또래의 여학생을 데리고 나온다. 그녀는 친구의 사촌이다. 우리는 이말

저말 끝에 「낙동강」 이야기를 한다. 그녀네도 진도가 거기까지 갔다고 한다. 우리는 박성운에 대하여, 로사에 대하여 말한다. 여학생은 활달하였다. 그녀는 두 사람의 남학생을 압도한다. 특히 '형평사'라는 것에 대하여 선생님 수준의 해설을 그들에게 들려준다. 이윽고 수박도 다 먹고 이야기도 다 하고 우리는 일어서 각기 잠자리를 찾아갔다. 밤중에 나는 잠이 깨어 뒤척이다가 마당으로 나왔다. 달은 없고 별발이 찬란했다. 집도 과수원도 멀리 둘러쳐진 산마루도 별빛 때문에 한층 더깊은 그림자로 서 있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우리들의 작문을 묶은 봉치를 들고 들어오셨다. 총평을 하신 다음 묶음 속에서 나의 작문을 꺼내 읽으라고 하셨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를 마쳤을 때 선생님은 학급을 향하여, 이 작문은 작문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것은 이미 유명한 신진 소설가의 '소설'이라고 선언하셨다.(82)

위의 인용 가운데 []표를 한 부분은 작문 내용을 압축한 것이다. 그런데 친구인 남학생과 그의 친구인 여학생이 「낙동강」을 소재로 이야기하는 중에 '나'는 텍스트를 다층적으로 구성한다. 이광수의 「흙」을 떠올리고 거기서 유순과 로사를 연계짓는다. 여학생은 사촌누님을 모델화한 것이다. 이처럼 텍스트를 다층적으로 중첩하는 중에 의미의 복잡성이 드러난다. 이는 삶의 의미연관을 복합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 주체가 작가로 성장하는 과정은 일상적 언어를 체험하면서 남의 언어를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이루어지는 성장과정과 흡사한 점이 있다. 인간의 성장은 남의 언어를 수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언어를 창조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 창조라는 것 또한 재구성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주체의 언어에 대한 태도가 문제될 뿐이다.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것이 소설인가 실화인가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소설이라면, 허구적 상상력으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허구적 언어활동을 사실적 언어 활동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언어활동의 실상이고, 실제적 언어활동 속에서 허구적 상상력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은 국어교육의 방법과 연관지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깨달음이 더욱 소중한 것이다.

VI. 언어세계와 현실세계

작가 최인훈은 <화두>에서 그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이야기를 잘 했다는 것을 적어두고 있다. 이 작품은 자전소설이기 때문에 작가와 작중인물과 서술자의 경계를 애써 구분하지 않아도 이해가 된다. 물론 허구성을 무시할 것은 아니다. 자전적 형식을 택했다는 것은 때로 허구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어머니나 할머니에 비해, 그의 부친은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던 부친이 나이가 들어 옛날 어머니나 할머니가 하던 방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친의 삶의 양식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이런 화제를 가지고 식구 중의 누구하고 마주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지난날에는 없었던 아버님이 지금 나를 데리고 앉아서 이려고 계시는 것이다. 책 속에 파묻혀 살던 내게는 지금 생각하니 그 점이 아버지께 대한 나의 외경감의 뿌리가 아니었나 싶다. 내가 책에 묻히듯 생활에 묻혀 있는 사람. 책이 그렇게 압도적이었듯, 그렇게 압도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살고 있는 사람, 나는 그렇게 아버님을 통해 '생활'이며 '세상'이라는 것을 이해한 셈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는 '책'이며 '책 안의 생활'이란 것은 이른바 '생활'이나 '현실'은 아니라고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 같은데 진짜 '생활'만을 살고 있는 아버님은 다른 세상에 갔다가 집에 오셔서서는 별로 할 일이 없으시다 다시 그곳으로 나가는 그런 존재였다. 이것은 어느 집 아버지나 다 그렇겠지만 내가 유독 백일몽을 사는 아이였기 때문에 날카롭게 의식한 것인 모양이다.(308)

여기서 언어세계와 현실세계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 글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어 세계와 현실세계를 별 상관없이 두 세계로 갈라 놓거나, 또는 그와는 상반되는 방식으로 언어세계는 현실세계를 반영하는 장치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편견도 없지 않다. 그런가 하면 이런 주장도 있다. 현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언어로 구성된 현실이 있을 뿐이다. 현실

이 구성되고 주체가 생기는 것도 언어로 자기 자신을 선언하는(?) 데서 가능할 뿐이라고 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말로 자기가 어떤 인간이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가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자기선언의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언어적 선언이 없으면, 그러한 조건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세계를 지니되 그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일이다. 그래야 진정한 자기 세계를 이룰 수 있다. 언어는 자아와 세계를 조율하는 매재이다. 세계는 실재하고 나도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그러나 내가 세계를 받아들이고 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언어는 존재와 존재를 이어 주는 상징적 매개체이다. 그러한 점에서 문학언어에서 일상언어로, 일상언어에서 문학언어로 넘나드는 일을 언어세계와 언어활동의 제반 국면에서 찾아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그렇게 두 세계를 넘나들면서 내가 구축하는 세계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떤 대상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이 위의 문장은 추상적 기호일 뿐이다. 실제로 운용되는 ‘육체의 언어’에서 언어는 곧 바로 행위이며 가치의 결단이다. 그 행위의 의미는 그 주체와 상황을 떠나서 논의할 수 없다.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던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너는 나의 애인이다.

이 예를 언어활동의 측면에서 설명해 보기로 하자. “너는 나의 애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의미의 다양성 가운데, “너는 내 사랑의 닷이다.”라는 뜻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문장의 모호함은 구문상의 구조에서 비롯되거나 사용된 단어의 뜻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애인이라는 말이 거느리고 있는 정황, 사랑이라는 것의 行爲資質(악템프)이 모호성을 초래하는 이유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애정이 너에게는 덧이나 족쇄가 될 수도 있는 법이다. 그 역도 참(진)이다. 그래서 사랑은 덧셈의 역설을 연출한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노래가 가능하고, 그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애뜻한 이미지로 남아 있는 것은 사랑의 행위자질이 모순성을, 역설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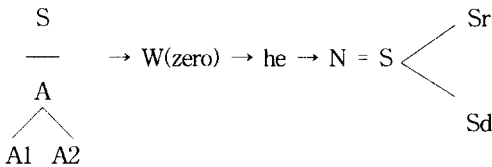
다른 예를 보기로 하자. 어떤 사람이 “나는 불자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자. 일차적으로 “나는 불자다.”라는 말은 사실적 지시 차원에서 그 사람의 종교를 지시한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의 지시 차원을 넘어서서 행동(활동)차원으로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의미의 충동을 불러올 수 있게 된다. 자신이 佛子라는 것 때문에 보신탕을 안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보신탕을 즐기는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면 된다. 그러나 불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할 경우, 불자라는 말 때문에 순교까지 감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사람은 말에 살고 말에 죽는다. 이러한 예는 조성기의 <우리 시대의 소설가>라는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언어가 운명적 속성을 띠면, 이는 인식과 실천을 포함하는 실존적 활동 차원에서 그러하다.

그런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뜻의 언어활동을 규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 잠정적으로 '언어활동'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주체와 주체의 분화 문제. 주체로서 인간의 자아는 복합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말을 할 경우, 말하는 행동을 하는 주체와 말의 내용을 의식하고 구성하는 주체를 상정하게 된다. “나는 생태주의를 지지한다.”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나의 그러한 의식을 지닌 주체와 그러한 말을 하는 주체로 나는 양분되어야 한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주체는 복합주체로 분화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언어활동은 주체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복수주체적 특징. 언어활동의 역동성은 주체와 주체의 겨룸 속에서 이루어진다. 언어활동은 일종의 힘겨루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주체가 개별적으로 맞수와 만나는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고 집단과 집단 사이의 복수적 맞수가 상정될 수도 있다. 셋째, 활동의 생산성. 언어활동은 의도한 바와 전혀 반대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결과를 예상치 않고는

성립하기 어렵다. 물론 농담하기처럼 언어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농담을 하는 가운데 지루한 시간이 잘 갔다든지 스트레스가 풀렸다든지 하는 효과가 부수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언어활동을 규정하자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언어활동은 주체가 복합주체로 분화되어 자아를 인식하고 복수주체들 사이에서 의미공유와 행동적 실천을 이루어내는 과정과 그 결과이다.”

문학의 언어를 다루는 데는 이러한 규정이 충분하지 못하다. 소설에서는 주체의 복합 현상이 중층적으로 이루어진다.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 체험주체와 서술주체, 그리고 작가의 자아가 분화되어 복합적 시선을 지닌 채 엇갈리기도, 인용화법이 수용됨으로써 주체의 분화는 지속된다. 그 분화된 주체들은 독자와 상호주관적 방식으로 경합을 벌이게 된다.

소설언어의 복합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설을 공부하는 사람의 욕망이 방법론으로 전이된 결과라고 봄직도 하다. 하지만 진리는 생성되는 것이지 객관적 존재로,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소설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다. 객관적 진리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소설에서 문제삼는 방식은 다르다. 그러한 진리를 찾아 나서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찾아내고자 벌이는 고투가 소설의 언어를 형성한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믿음에서는 소설 언어의 복합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소설의 언어는 다음과 같은 도식에 감싸인다.



S: 서술주체. Sr: 서술주체가 설명주체로 구현된 것.

Sd: 서술주체가 발화주체로 구현된 것.

A: 수 화 자. A₁: 텍스트에 대한 능기체로서의 수화자.

A₂: 서술주체와 자신의 관계에서 능기가 된 수화자.

W: 실질적인 작가(무화됨으로써 숨겨진 작가가 됨)

he: 작품에 나타나는 대명사

N: 작품에 나타나는 고유명사

이는 소설의 담론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에,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소설의 텍스트』에서 그리고 있는 도식을 필자가 『한국 현대소설구조연구』라는 책에서 다시 설명해 본 것이다. 이 도식은 시모어 채트맨이 『이야기와 담론』에서 제시하는 서사텍스트 모형에 비해 ① 서술주체와 수화자를 한 단위로 보았다는 점, ② 수화자의 이중적 작용을 고려했다는 점, ③ 서술주체가 그 기능에 있어서 이중적이 된다는 점이 확연히 다른 것이다. 여기서 크리스테바가 바흐진의 대화주의 방법론을 수용하여 변형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인용한 도식에 따르면, 담론을 이루는 주체들은 내용과 형식의 차원으로 다시 구분된다. 하나의 주체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두 차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텍스트 안에서 말하는 주체와 말을 듣는 주체, 그리고 이들의 상호轉化關係를 통해 상호주체적 언어수행이 이루어진다. 화자와 청자의 상호 전화관계는 언어활동에서 구현될 수 있는 민주화 이념과 연관되는 사항이다. 언어 소통의 일방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열리는 것이다.

나와 너의 인칭 문제라든지 시제와 시상 그리고 서술태 등에 대한 검토가 소설론에서 진작에 있어 왔다. 언어학에서 말하는 언어활동의 주관성을 소설에서는 주체, 대상, 수용자 등의 측면에서 상호주관성을 띤다는 것도, 르네 웰렉이 『문학의 이론』에서 지적한 이래 논의의 역사가 꽤 길다. 그리고 문학은 사실을 기술하거나 직설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제안을 하는 언어라는 점도 오스틴이 『언어행위론』에서 발화수반행위를 설명한 이래 매리 루이즈 프래트 같은 이는 『문학 담론의 언어행위이론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설명한 바 있다. 철학자 존 설 등은 『언어행위』라는 책

이나 『표현과 의미』등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함으로써 널리 용인될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항이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바처럼, 복합주체들 사이에 어떻게 아무런 전제 없이 의미의 전이가 가능한가 하는 데 있는 듯하다.

그들은 【나는(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가 안다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화제이다. 그 화제 내용을 나는 안다. 이를 다시 화제로 하여 그가 알고,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언어활동은 누가 주체이고 그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 편에서는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 안달이 난 내 편에서 너를 앞에 두고 너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을 상정할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이들이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거리로 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제 삼자가(소설에서라면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다.

나와 너의 관계, 혹은 나의 너에 대한 사랑을 그가 알고, 또 더 나아가 그가 그것을 안다는 것을 그들까지 알고 있다는 것,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서술할 경우,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있고, 서술자를 설정하는 주체(예컨대 작가 같은 존재)는 서술자의 영역 밖에 있게 된다. 층위가 다른 주체들 사이에 이처럼 다양한 의미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언어활동의 힘이다. 이러한 인식의 겹쳐짐은 퍼지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모양을 달리한 괄호 하나마다 그 위에 超絶的 存在(슈퍼빙)를 상정해야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는 구도가 마련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가다듬어 보기로 한다.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문장을 이 글을 쓰는 내가 발화했다고 할 경우, 그리하여 언어활동의 결과로 그러한 발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경우 나의 몇 가지 차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몸 차원의 나이다. 이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이다. 1948년 생, 키 175cm, 체중 80kg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잠자고 배설하고 글쓰고 하는 내가 있다. 나는 병이 나면 몸이 아프다, 나는 자아가 아니라 몸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른바 내면이라고 하는 차원이 내가 있다. 나의 감정, 정서, 사고, 습관 등으로 이해되는 내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공통되는 정서와 차별되는 정서를 함께 지니고 있다. 감정의 움직임 또한 그렇다. 나는 나 너의 남과 조금 구별되는 사고형태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셋째, 사회 제도와 관습 등 외적으로 규정되는 내가 있다. 한 집안의 가장, 국립대학교수, 문학과 문학교육을 가르치는 사람, 어느 학회 회원 등이 그것이다.

이들 가운데, 몸으로서의 나인 첫째 조건을 다른 사람(他者)이 만들어 주거나 남과 공유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의 나는 남과 공유되는 측면이 상당히 존재한다. 세 번째는 거의 남이 만들어 주는 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르튀르 랭보의 말대로 타인은 지옥이다. 나를 비추는 남이 없으면 나의 자의식은 촉발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언어활동에서는 내가 분석하는 분석 대상이 되고 동시에 분석 주체이다. 언어현상 가운데 내가 주체이면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이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주객동일성을 지닌 것이 인간의 주체개념이다. 인문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주객동일성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인문학은 인격을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역의 모든 논의는 윤리의 문제로 연계된다. 문학의 경우 또한 이와 유사한 구조의 언어활동으로 수행되고 논의된다.

이 가운데, 주체의 속성인 ‘진실하다는 것’은 어느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는 간단히 처리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차원이 混在되어 있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나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뒤섞여 있다. 오늘의 진실함이 있기까지 구축해 온 신뢰와 의무의 이행 등이 있었던 것이다. 거

기다가 미래의 나까지 현재의 나에 혼입되어 있다.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고 한다. 미래는 그렇게 현재에 들어온다.

일상언어라고 해서 주체가 모두 이렇게 분화되고 섬세한 시각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언어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섬세하게 조직되고 운용되는 언어활동을 단순화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또한 언어활동의 실상이 이러한데 그것을 언어학의 관점에서 실제로 부각하고 절대화하는 방법 또한 벗어나야 한다. 언어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논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학문 추구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육 차원에서 언어활동을 규정할 경우,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학의 언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느낌이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언어 저너머'를 넘본다. 그런 점에서 자신을 모르는 도발적 언어가 문학의 언어라 할 수 있다. 문학에서는 형상은 지니고 있는데 언어화가 안 되는 부분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끊임없이 드러낸다. 역설적이지만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한다. 『論語』 위정편에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아가 모르는 것을 알겠다는 무모할 정도의 추구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문학행위이다. 그러한 점에서, 언어학이 확정적 의미에 집착한다면 문학은 의미의 불확정성을 인정하고 출발한다. 언어학이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으려 한다면 문학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도전의 언어이다. 그러한 예를 한용운의 시 <알 수 없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가 시적 언어의 핵심을 보여 준다든지 서정시로서 대표성을 지닌다든지 하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한다. 언어활동의 한 국면으로서의 缺如概念(없는 것의 존재를 표현하는 말들)을 표현하는 추구가 문학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는가 하는 점만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만이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垂直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의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언뜻 같은 발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이 시는 어떤 언어활동인가? 일단은 문학적 언어활동이라는 점을 승인하고 들어가기로 하자. 그러면 이 시의 주체는 누구인가? 시의 마지막 행에 비로소 주체가 얼굴을 내민다. 일인칭 대명사 ‘나’가 나온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하는 데 나오는 ‘나’는 어느 차원의 나인가? 여기서 답을 하기보다는 그 층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기로 하자.

나의 가슴은 등불의 은유로 비유되어 있다. 나의 가슴이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은 누군가의 밤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은 대단히 미약하다. 그러나 그칠 줄 모르고 탄다는 점에서 힘이 있는 등불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누구의 밤을 지키는 등불인 것을 모른다고 하는 이상, 나라는 존재 또한 누구인지 규정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존재가 아주 없는 것인가 하면 또 그렇지 않다. 존재는 존재로 감지되기는 하는데 언어화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를 이성중심주의적 시각에서는 존재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문학, 시에서 그러한 존재를 언어로 형상화하고자 한다. 이는 가히 존재충동이라고나 할 만한 그러한 언어적 욕구이다.

언어화되지 않는 존재를 존재로 돌구어 올리는 데 우리는 은유를 동원한다. 은유는 비슷한 것은 같다는 모순의 논리이다. A=B 라는 식으로 동일률이나 排中律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식의 논리를 무시한다. 이렇게 논

리를 무시한 채 대상을 언어화하는 것이 시에서 언어가 수행하는 특징적 역할이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는 일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서 수많은 의미를 달고 있는 형상(실체가)이 된다. 그리고 위에 인용한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어화할 수 없는 것을 언어화하는, 결여성을 뒤집어 놓는 혁명적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문학의 언어 특징 중의 의미있는 국면이다. 이러한 치열한 사유의 끝가지에 열리는 맵싼 열매가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하는 역설이다. 역설에서 주체개념은 의미의 극한에 다다르게 된다. 이러한 언어활동은 민족이라는 거대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 언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이 모순으로 가득한데 어찌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에 모순이 없기를 기대하겠는가. 나는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또한 나를 사랑한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어찌랴, 나는 나의 언어로 너의 손목을 잡거나 머리채를 쓰다듬을 수가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러려면 혁명의 칼을 빼드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가슴이 부풀어 울렁여 나는 말을 잊느니, 말이 없으면 그대 얼굴은 또한 가뭇없이 사라지고 만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걸쳐 있는 이 구렁을 직접 매꾸는 방법이 이렇게 막연한데, 언어와 현실의 거리가 말할 바 있겠는가. 언어와 사실 그 사이에서 주체와 대상의 거리가 소멸한다면, 그리하여 의미있는 활동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주체의 분열쯤이야 무슨 상관일 것이며 주체의 중층적 분화가 대수겠는가.

우리에게는 시대의 어둠을 밀어내며 내 땅의 언어를 손질할 일이 있을 따름이다. 그것이 일상이면 어떻고 문학이면 무엇이랴. 언어활동이 내 존재의 증명이고 내가 남과 더불어 사는 윤리를 실천하는 길이 언어활동에서 열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나아갈 길은 언어활동 말고 달리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 참고문헌 》

- 박갑수(1998), 『현대문학의 문체와 표현』, 집문당.
우한용(1997), 『한국현대소설구조연구』, 삼지원.
우한용(1996), 『한국현대소설담론연구』, 삼지원.
장석진(1990), 『오스틴 화행론』, 서울대출판부.

- Bakhtin, M. M.(1979), *The Dialogic Imagination*, University of Texas Press.
Kristeva, Julia(1979), *Le Texte du Roman*, Mouton Publishers.
Oakeshott, Michael(1975), *On Human Conduct*, Oxford U.P. : Clarendon.
Pratt, Mary Louise(1977), *Toward a Speech Act Theory of Literature Discourse*, Indiana U.P.
Searle, John R.(1983), *Intentionality*, Cambridge U.P.
Searle, John R.(1969), *Speech Acts*, Cambridge U.P.
Wellek, René & Warren, Austin(1970),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